

# “문화흐름 주도할 국제감각이 필요한 때”

## 동경국제도서전 및 APPA 총회에 다녀온 김현식 출협 부회장

김현식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열렸던 제3회 동경국제도서전과 아시아·태평양출판연합(APPA) 총회에 다녀왔다. 특히 이번 일정은 '95 서울국제도서전을 앞둔 시점에서 김부회장에게 남다른 감회를 안겨준 듯 싶다.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세계의 출판인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의 출판이미지를 재점검해야 하리란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한국의 출판업을 선진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선 국제감각부터 다져야 할 겁니다. 이젠 우리도 국내 업계끼리의 경쟁에서 벗어나 외국과의 경쟁에 당당히 나서고 문화적 흐름을 주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 일본동경 지바 마쿠하리 메세홀에서 32개국 9백여사가 참가한 동경국제도서전(2월 8일~11일)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적 출판활동의 진전과 저작권보호’를 주제로 한 제3회 APPA 포럼 등 행사일정을 둘러보고 난 김부회장은 바야흐로 국제화시대에 접어든 한국출판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진중한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번 동경국제도서전이 예년에 비해 축소됐다는 일반평과는 달리 김부회장은 “양이 문제

가 아니라 참가사의 50%가 외국출판사였던 만큼 국제도서전으로서의 질적 내용은 충실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김부회장이 전 일본서적출판협회장이며 현 APPA회장인 하토리 도시요끼씨와 현 일본서적출판협회회장인 다케오 와타나베씨와 가진 간담회는 일본출판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자리에서 오늘날 선진국으로서 일본이 발돋움하는 데는 출판이 그 힘의 원천이었다는 강한 자긍심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

“그 힘의 원천이란 첫째 출판이 진보세력으로서 일반 국민과 엘리트층을 리드했고, 둘째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공급한다’는 등의 출판모토로 지식의 대중화에 큰 몫을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소 평가절하하는 ‘만화’의 장르에서조차 그들은 국가에 도움이 돼야 출판한다는 강한 출판정신으로 무장돼 있는 거죠.”

전문화와 종합출판의 역할분담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룬 일본출판의 미래 역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김부회장은 또 엄숙주의와 상업성의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좀더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독자들로



지난 동경국제도서전 개막식 때 이례적으로 개막연설을 해 주목을 끌었던 김현식부회장.

하여금 ‘읽히는’ 책을 만들어 문화와 의식의 질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장소 또한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일본출판계를 둘러본 후 더욱 확고히 다져진 생각이라고 밝힌다. 이제 한국의 출판은 개방이나 유통문제, 뉴미디어 등의 현안들에 대해 좀더 진지한 문제의식을 지녀야 하리라는 견해다.

서울대 상과대를 졸업, 85년 (주)동아출판사와 동아인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서 출판과 인연을 맺은 지 햇수로 11년째이지만, 현재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 대표이사과 출협 부회장 등 출판계 최전선의 중책을 맡아 할 만큼 출판에 대한 애정은 실무와 팽팽히 연결돼 있다. 가끔 시간이 나면 골프와 클래식음악을 즐기지만 뉴미디어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컴퓨터공부에도 게으르지 않다. “무언가 남는 책, 안보면 아쉬운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출판철학이다.

— 김지원 기자

### 출판뉴스

## 나춘호씨 출협회장선거 출마선언

### 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정기총회서 밝혀



지난 3월 8일 열린 청소년 도서출판협의회 제9차 총회 모습.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나춘호 회장(예림당 대표)이 내년 초에 있을 차기 출판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나춘호씨의 출협회장 출마 결정은 지난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협의회 제9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그의 출협회장 후보 추대는 이미 지난 2월 14일 동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진받았다. 이에 따라 나춘호씨의 출협 회장선거운동은 동 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출협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나춘호씨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출협의 일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출협 회장 후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모두 150개 회원사 중 138개사가 참가해 회원사들의 서울국제도서전 공동참여, 불량도서 추방 캠페인 전개, 도서대여점 공동대응책 모색 등을 올해의 사업으로 확정했다.

### 현암사 창업50주년 기념강좌 개최

현암사(대표 조근태)는 창립50주년 기념으

로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시민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금요일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강좌는 지난 17일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삶의 가치관’(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주제로 첫강좌를 치렀다.

4월에는 ‘윤리의 위기, 새로운 도덕성 회복을 위해’라는 주제로 박영식 연세대 철학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한국잡지 100년」 출판기념회

한국잡지협회(회장 김영진)는 「한국잡지 100년」 출판기념회를 지난 13일 서울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열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 「대조선 독립협회보」 창간 이후 최근까지의 잡지 발달사를 다루고 있다.